

대행 스님

어린애가 젖줄을 놓치면 죽듯 자부처의 젖줄을 놓치지 말라

… 융통성이 없기에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지능이 발달돼야 한다' 또는 '우리가 지혜로써 무기를 삼아야 한다' 이런 문제 등등이 있을 때 모든 지혜가 스스로서 부풀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법당에 있을 때는, 만약에 예배를 올린다 이럴 때는 부처님 앞에 몽땅 갖다가 한군데다 놓고 예배를 올린다. 자기는 비우며 살아라 이겁니다. 또 그때에 다 갖다가 하나로 뭉쳐 놨다가 자기가 참선할 때나 이럴 때는 순간, 갖다 놓고 절을 했다가…, 자기한테 절을 한 거지마는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에요. 일체가 다 들어 있는 한마음의 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상구보리요, 아래로는 하화중생이라'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복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그 뜻을 잘 알아서 행할 수 있는 대로 행해 본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참선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앞에 오면 부처님 앞에 절도 하지마는 예배 올리고 난 뒤에 고할 때에도 항상 부처님 앞에만 고하고 있습니다. 관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한 것이 바로 융통한 그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릴 때는 내 마음을 탕 비우고서 갖다가 놓고 예배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관할 때는 다시 몽땅 갖다가 내 마음속에 놓고 관하는 것입니다.

저 꽃나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꽃나무가 되려면 되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꽃나무가 내가 되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둘이 아니죠. 그쪽이 내가 됐다가 내가 바로 그쪽이 됐다가 이런 융통성이 없이는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융통성이 없이는 항상 둘 셋으로 돌아가지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잘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하루, 보름 이렇게 설법을 하고 또 이틀 사흘 되는 날도….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밝은 그 불씨를 얼마만 하게 내가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 지혜를 내느냐. 또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관해서 자기 생명수의 그 근본을 발견하느냐.' 이게 문젭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 앉아서 관하고 참선을 하는데도 망상이 수없이 떠올라. 몸뚱이는 여기 앉았는데 벌써 마음은 집에 가서 애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남편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친구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사하는 일 또 집에서 안 되는 일 뭐, 이런 것이 담뿍 들었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은 근본에서 해결이 돼야지, 근본이 아닌 이상, 즉 말하자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뿌리가 싱싱하다면 가지도 싱싱하고 이파리도 싱싱하거늘, 그리고 이파리가 싱싱하다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건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파리 시든다고만 걱정을 하고 또 가지가 썩어 들어간다는 생각만 한 거예요. 이것은 근본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도 이파리도 누렇게 썩어 들어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내 몸과 같은 겁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데도,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장사를 하든지 또 회사를 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먹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싱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에서 해결을 해서 스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뿌리 없는 뿌리기 때문에,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마음만 먹는다면 그 슬기로운 마음에서 수없이, 이파리의 잘못된 벌레 먹은 거 또는 그 가지의 벌레 먹은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것만 가지고 뭐냐 하고 망상에 찌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근본의 그 생수 맛은 도저히 맛볼 수도 없거니와 그 생수로 인해서 말짱히, 벌레 먹은 거나 썩어 들어간 거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데도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내 법을 그냥 활용할 수 있을 때 부처님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금과 같고 옥과 같아서 금으로 다듬고 옥으로 모든 일들을 활용할 때 우리는 초가삼간을 지어 놓고서도 충성, 효도를 다해 가면서 수없는 나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참, 나물을 먹고 팔 베고 누웠어도 대장부 살림살이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좁아터진 마음, 아주 옹졸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어느 시에 편안한 날이 없어.

그리고 또 신도 여러분 중에서도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야 천차만별로 많겠지마는 그런 것을 근본에다가 만약에 맡겨 놓으시고 모든 것은 거기서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체 없는 자기의 수천수만이 체가 없는 금과 같은 빛으로서, 부처님의 빛으로서 다 찬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네들이 지내는데 항상 얻어먹고,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를 먹고 그저 절만 받고, 절을 받으면 자기가 받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모순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절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당신의 마음들을 탕 비우고서 갖다 놓고 절을 할 때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는 거지 부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항복시키고, 자기가 자기에게 항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알면서 자각해 들어간다면 머지않아서 한국 불교도 생동력 있게 대성황 할 수 있는, 삶의 보람을 여러분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불교가 될 겁니다. 그것이 불국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지마는 배우는 분들도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력과 지혜로운 마음을 융통성 있게 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알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환경에 따라서, 내게 줬다면 바로 네가 있는 것이 내가 되고 그럴 때에 이 불성이거든요.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빚을 받으러 가는 데도 때에 따라서는 '너 이놈, 두고 봐라. 너 얄미워서 내가 돈을 꼭 받아야겠다, 오늘은.' 이러고 가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둘로 본다면 아니 됩니다. 언제나 슬기로운 마음으로써, 없다면 '없는 것을 어쩌겠나.'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내게 주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바로 이 주인공이 저 주인공을 불러서 그쪽으로 줬을 때, 나는 빈 그릇만, 입만 가서 놀렸는데 그것은 나이기 때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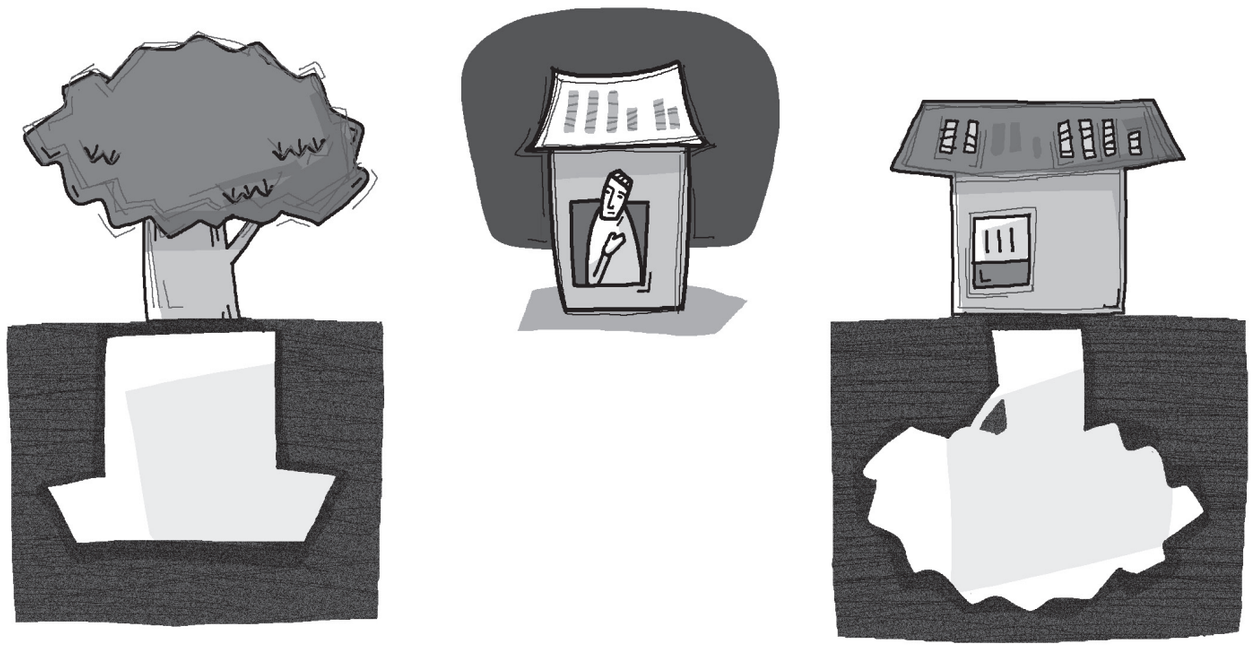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